태국 쌀 수매 4월 1일 재개

(2013.3.19. Pattaya Mail)

원제: Rice pledging scheme relaunch set for April 1 - Tuesday, 19 March 2013

BAAC(Bank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)는 3월 20일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1,050억 바트의 정부예산이 소요될 태국의 쌀 보조정책이 4월 1일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. 이 정책 내에는 2013년 2기작 쌀 700만 톤의 수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. 태국 상업부는 정부 재고 중 쌀을 판매하고 BAAC에게 신곡을 구매할 자금으로 750억 바트를 지불했다. 태국 무역부는 2013년 BAAC의 수익금이 총 2,200억 바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. BAAC는 수매하는 쌀의 품질이 시장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가 90일 이내에 조기성숙한 저품질 쌀은 수매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.